

‘대화록 유출’ 김무성·권영세 등 줄줄이 무혐의

정문헌 약식기소... 野 “친박 봐주기” 강력 반발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 등 4명은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야당과 노무현재단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

(55)·윤재욱(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

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희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담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

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과 노무현 재단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을 통해 “친박좌파”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jpark@연합뉴스

박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오는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분야의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또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방안을 협의한다.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 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 방안, 과학기술과 산림, 환경 등 분야로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주호영 ‘교육감 선거 임명제 전환’ 주장 논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취지의 주장을 제기, 논란을 낳고 있다.

그의 발언이 지난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주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서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 직전에 가동돼서 (정치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한열 열사 추모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이한열 열사의 27기 추모제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려 학생들이 고인의 영정과 대형 초상화를 들고 교정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추협 일지 ‘민주화기록’으로 남긴다

YS·DJ 가택연금, 간부 연행 구금 등 생생히 담겨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일일 회의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민주화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주 목된다.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당시 민추협 전문위원이던 김영춘(64)씨가

1984~1987년 민추협 회의 및 활동 내용을 담은 ‘회무일지’를 기증받아 민주화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동동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계가 하나로 뭉쳐 결성한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첫 기록은 1984년 9월 경찰로부터 압수당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사무실 집기를 회수한 내용이다.

민추협은 그해 7월 관철동에 첫 사무실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방해하고 회원들을 연행하면서 소파 등 집기를 압수했는데, 두 달 만에 집기를 돌려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회의록에는 1987년 민추협이 해체 절차

를 밟을 때까지 매일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민추협 회의록을 살펴보면 YS와 DJ 공동의장이 수시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간부들도 연행과 구금을 반복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또한, 학원·노동·종교계에서 전개된 각종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했던 상황도 꼼꼼하게 나타나 있다.

사료화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일반인에게 개방될 것으로 민주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개성공단 北 근로자 임금 5월부터 5% 인상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부터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 근로 수당, 상급, 장려금 등이 더해진 형태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임금은 그동안 7월에 남북 간 협의를 거친 뒤 8월부터 인상돼 왔다. 올해의 경우 인상 시기가 3개월 빨라진 셈이다.

이번 조기 인상 합의는 올해 5%씩 두 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와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적으로 135~150 달러가 지급되며, 연간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은 8700여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모집

- 원서 접수 : 2014년 5월 27일(화) ~ 6월 12일(목)
- 전형 : 2014년 6월 27일(금) ○ 합격자 발표 : 2014년 7월 9일 (예정)
- 문의 : (062) 970-0071~2, 홈페이지(graduate.nambu.ac.kr)
- * 입학 당해 학기는 수업료의 20~30%를 장학금으로 지급

구	분	모집 단위
일반대학원 (주간수업)	박사과정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대체의학과,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향장미용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방사선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향장미용학과, 스포츠과학과, 음악학과
교육대학원 (야간수업)	석사과정/ 학위논문과정, 학위논문면제과정: 각각 5학기제	유아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특수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보건경영대학원 (야간수업)	석사과정/학위논문과정 4학기제, 논문면제과정 5학기제	경영컨설팅학과, 한국어교육학과, 대체의학과, 의공학과

남부대 평생교육원 특별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모집과정

강좌	강사	정원	수강료
팡팡 노래교실	김중식	40명	8만원
파크 골프 교실	김혜경	30명	8만원
- 모집기간 : 2014년 5월 26일(월) ~ 6월 27일(금) / 선착순
- 접수방법
 - 가. 전화(062-970-0082~3), 또는 원서(다운로드) Fax(970-0084) 제출
 - 나. 접수 확인 후 입금 계좌번호 문자 발송
- 수강료 : 8만원 (8주 전체) - 파크골프는 1회당 용구·시설 대여료 3천원 별도
- 강의 기간 : 2014년 7월 7일 ~ 8월 30일 (주 1회)
 - 노래교실 : 금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남부대학교
 - 파크골프교실 : 토요일 오전 8시 ~ 10시, 대상공원
 - *파크골프(Park golf):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게임
- 문의 : (062) 970-0082, 홈페이지 참조

남부대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 모집분야 :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 모집기간 : 2014년 5월 16일(금) ~ 6월 28일(토)
- 강의기간 : 2014년 9월 8일 ~ 12월 26일(총 15주)
- 자격요건
 - 가.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및 1년 이상의 강의 경력
 - 나.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및 2년 이상의 강의 경력
 - 다. 특수한 경우에는 자체 판단으로 결정
- 제출서류
 - 가.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강사 지원서 1부(다운로드)
 - 나.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신청서 1부(다운로드)
 - 다. 강의계획서 1부(다운로드)
 -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 자격증 과정일 경우, 별도 본인 자격증 규정 양식 작성
- 제출 장소 및 방법 : 남부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교육원 1층) 방문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문의 : (062) 970-0082~3,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월계동 864-1)
 입학안내 TEL : 062)970-0114~5 www.nambu.ac.kr